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진로전환에 관한 연구 : 회복탄력성을 중심으로

박상우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A Study on the Career Transition for Babyboomer retirees : Based on The Resilience

Sang-Woo Park
Department of Vocational Studies, Kyonggi University

요약 최근 기업의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해 상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베이비부머들은 미처 준비되지 못한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해 자신의 일자리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회복탄력성은 퇴직이라는 개인의 심리적인 역경을 극복하는 관점에서 중요해졌다. 이에 본 연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베이비부머들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이 진로전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개인특성이 진로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성별과 직종에서 유의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또한 회복탄력성이 진로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회복탄력성은 진로전환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하위요인 중 긍정성은 상황지각, 대처방식, 지지에서 매우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고 대인관계능력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자기조절능력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퇴직 후 진로전환을 준비해야만 하는 베이비부머들에게 회복탄력성은 자신에게 처한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적응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매우 필요한 능력으로 검증되었으며, 베이비부머들을 대상으로 진로전환의 상담과정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 된다.

Abstract Recent changes in corporate environment, both internal and external, have led to permanent restructuring, which has left baby boomers facing a serious threat to their jobs due to an unprepared involuntary retirement. In line with this period of time, resilience has become important in terms of overcoming the psychological hardships of retirement. In response, the study conducted a study on the effect of resilience on career path conversion among involuntary retirees of baby boomers. The effect on career conversion on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baby-boomer retirees has been verified by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der and job type. In addition, the results of verification of the effect of recovery elasticity on career path transition confirmed that recovery elasticity has a very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path transition, and the positive effect of the positive factors among the lower factors was verified to have a ver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ituational perception, coping method and support, and it was confirmed that interpersonal ability also has an effect on positive effect. However, the ability to self-control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Thus, for baby boomers who have to prepare for career transformation after retirement, the resilience has been proven to be a very necessary ability to overcome their hardships and make successful adaptations, an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very useful in the course of career transition counseling for baby boomers.

Keywords : Babyboomer, Career, Transition, Job, Resilience, Retiree

This manuscript is a condensed, amendment, or supplement from the Sang-Woo Park's master's thesis from Kyonggi Univ.

*Corresponding Author : Sang-Woo Park(Kyonggi Univ.)

Tel: +82-10-32709-2551 email: woops2551@naver.com

Received February 21, 2019

Revised March 29, 2019

Accepted May 3, 2019

Published May 31, 2019

1. 서론

최근 한국사회에서 베이비붐 세대(1955~1963)가 조망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전체인구 중 14.6%에 해당하는 거대한 인구코호트로 그 숫자는 약 712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일이 삶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한 일에 큰 가치를 두고 있는 세대이다.

베이비부머들은 기업 환경의 변화로 미처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구조조정, 명예퇴직 등으로 이전 세대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노동시장의 큰 변화를 겪으면서 퇴직 후 진로문제를 고민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2014)의 발표에 의하면 베이비부머의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으로 인한 직업상실의 영향은 가계소득 감소, 자녀교육의 부담 확대는 물론 소비침체 등의 영향으로 국민생활에 불안을 증대 시키며, 근로소득 저하와 조세수입의 감소, 또한 복지비용을 크게 증가시켜 국가재정을 악화 시킨다는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퇴직은 시대적 흐름의 변화,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되었으며, 직업적 경력이 끝나거나 줄어드는 과정으로 새로운 지위와 역할로 전이되는 사회화 과정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경제활동인구에서 부양인구로의 전환으로 정의된다[1]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베이비부머들은 퇴직 후 낙관, 의기소침, 불안·초조, 분노의 정서적 변화를 거친다고 보는데, 이는 심리적으로 의기소침, 자신감 상실, 무력감으로 나타나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에 빠져들게 한다.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베이비부머들의 진로에 대한 문제는 전직과 퇴직, 은퇴 등을 고려해야만 하는 시기로 진로전환과 노동시장의 재진입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퇴직과 실업의 충격을 줄이고 빠른 시간 내에 일을 찾아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가가 최대의 관건이며, 추가적으로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고 이후 겪게 될 심리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로문제의 열쇠이다[2].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벗어나 가교일자리의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변화의 흐름에 적절하게 적응해야 하며, 새로 일을 찾는 과정을 통해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 즉, 재취업, 창업, 창직, 사회공헌, 귀농 귀촌 등 자신이 보유한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전환을 모색해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들이 퇴직 후 발생하는 정서적·심리적인 변화를 극복하고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회복탄력성이 진로전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자 한다. 이를 통해 베이비부머들의 진로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효과적인 진로전환을 도와 인생이모작을 위한 진로상담 서비스와 전직지원 서비스에 대한 방향수립을 지원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2. 본론

2.1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2.1.1 베이비부머의 개념과 특징

특정한 시기에 사회·경제적 이유로 출생률 증가가 지속되는 현상을 베이비붐(baby boom)이라고 하며, 이 기간 중에 출생한 인구집단을 베이비부머라고 한다.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한국전쟁이 종전된 이후 극심한 사회·경제적 혼란기에 태어난 세대로 1955년에서 시작하여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4.6%에 해당되는 거대한 인구집단이다.

전 세계적으로 베이비붐이 나타난 것은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부터 약 10~20년간에 걸쳐 나타났으며, 베이비부머에 대한 이론적인 규정을 처음으로 정립한 학자는 Jones(1980)으로 미국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 국가별로 베이비부머가 나타난 시점을 살펴보면 미국은 1946년부터 1964년까지 19년 동안이며, 이 시기의 합계 출산율은 3.0을 상회하였다[3]. 미국의 베이비부머들은 전체 인구의 1/4수준에 이르며 미국사회에 사회변동 요인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친 막강한 인구 코호트 집단이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전후 일본 경제가 성장하는데 원동력이 되었으며, 사회활동을 하려는 의식이 강한 세대이다[4]. 그러나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본격적인 은퇴가 이루어짐에 따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인재가 대량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2006년 '고용자 고용안정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기업에서는 정규직에서 퇴직 후 재고용 및 점진적인 퇴직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퇴직자에 대한 진로전환을 위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 실버인재센터 및 창업 서포터센터를 운영하여 지원하고 있다[3].

한국의 베이비붐은 시기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늦게 나타난 특징을 갖고 있으나 2010년부터 대량 퇴직으로 인해 진로전환기를 맞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진로전

환은 퇴직이나 은퇴 등의 비자발적인 전환에 초점을 맞추어져 왔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 그러나 전환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진로 전환은 자신의 직업행동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며, 새로운 직업을 통하여 일의 의미나 삶의 의미를 찾아가며 자아를 찾는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베이비부머의 진로전환은 생계유지, 소명과 운명, 경력개발, 흥미추구, 행복추구, 자아실현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4].

2.1.2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원래 환경에 따른 스트레스와 역경 또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행동적, 정서적인 문제를 보이지 않고 내·외적 상황의 변화에 쉽게 적응하고 회복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란 의미로 활용된다[5].

회복탄력성은 심리학이나, 사회복지학, 정신병리학, 또는 보건학, 간호학 등의 학문분야에서 사용된 탄력성(resilience)의 개념을 진로영역과 직업심리학 영역으로 확장시켜 나가면서 파생된 용어(Lew, 2001)로서, Waite, Weiner, Delahunty(1988)은 탄력성의 개념을 인간에게 적용하여 변화나 역경에 쉽게 적응하고, 회복하는 능력, 질병이나 충격 등에서 빨리 회복하는 힘, 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6].

학문분야별 탄력성의 개념은 Sely(1984)는 생리학에서 적응(adaption)을 향상성을 유지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Jones(1981)은 간호학에서 적응을 생존하고 성장 및 발전시키기 위해 내외적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재생산시키는 능력이라 하였다. 정신의학에서 Flach(1988)은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데 필요한 심리적 또는 생물학적 힘이라고 정의 하였다. 또한 아동심리학에서는 좌절과 실패로부터 회복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능력(Demos, 1989)으로, 성격이론에서 Block & Block(1980)은 내외적 스트레스원에 대하여 융통성이 있게 반응하고, 적응에 필요한 자원을 잘 활용하는 일반적인 능력이라고 보고 있다.

회복탄력성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아동발달과 관련된 분야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7], 최근에는 스트레스나 개인적인 위협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동과 정서에 문제를 나타내지 않고 건강하게 잘 적응해 나가는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해 회복탄력성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8]. 주로 아동 및 청소년,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 또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성인들을 대

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다[9].

한상욱(2015)은 중년기의 기혼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중년기에는 발달 과정상의 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데 이때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고 건강하게 극복함으로써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만드는 회복탄력성의 중요성이 크게 요구된다고 보고하였다[9].

손승민(2013)은 초기 성인기의 자아개념과 회복탄력성과의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의 대인관계능력과 긍정성의 하위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으며[10], 한선영(2015)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과 삶에서의 균형과 직무만족과의 관계는 개인 특성에 따라 회복탄력성은 직무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탄력성의 개념은 연구 분야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며, 일치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을 퇴직이라는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해가며 변화된 환경을 자신이 원하는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개인의 총체적인 능력이라 정의 한다.

또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나 역경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성공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들이 퇴직 이후 진로전환의 과정에서 회복탄력성이 실직에서 오는 위기와 스트레스의 영향을 극복하고 진로전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실증적으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2.1.3 진로전환

진로(Career)는 좁게는 직업(Occupation)이고 넓게는 한 개인이 일생을 통해서 행하는 모든 행동을 포함한 일반적인 생활 형태이다[11]. 이러한 의미에서 진로전환은 직업전환, 경력전환 등의 다양한 용어로도 정의되고 있다.

진로전환은 이직, 전직뿐만 아니라 학생신분을 벗어나 직업인이 되는 것, 직장에서 퇴직 후 실직자가 되는 것과 직장 내에서의 직무이동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전환은 완결이 아니라 이행이 일어나게 되는 연속적인 개념으로 진로전환이 인식에서부터 이직, 전직, 전환활동, 재 입직과 직업 적응 등으로 이어지는 개인의 직업생애사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12]

진로는 전 생애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누구나

전환의 시기를 가져 오게 된다. 이러한 전환의 시기는 어떠한 사건이나 비사건으로 인하여 자신과 세계관에 새로운 변화가 생김으로써 자신의 행동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요구될 때에 발생한다[13].

일반적으로 진로측면에서의 전환은 개인이 친숙한 삶의 방식에서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하는데, Bridge(2001)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것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사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했다. Schlossberg(1984)는 성인의 직업적인 재평가와 진로 전환 과정에서 개인차가 존재한다고 하였다[13].

진로전환은 외환위기 이후 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그동안 당연시 되어왔던 ‘평생직장’의 기대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등장한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14], 베이비부머의 진로전환은 중고령자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직과 전직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직업생활을 연장하기 위해 스스로 진로를 전환하는 것이다[15].

한편 유사한 용어로 쓰이는 경력전환과 관련하여 Hopson과 Adams(1977)는 개인의 전환과정을 부동화, 최소화, 자기부정, 방임, 시도, 의미 탐색, 내면화에 이르는 7단계 모델로 제시하였다. 또한 Mirabile(1985)는 개인이 퇴직을 거치며 겪게 되는 심리적 변화를 위한 단계, 성찰 단계, 명확화 단계, 방향설정 단계, 관점전환 단계로 구분하면서 혼란 극복에서부터 새로운 경력전환을 추구하는 기회로서의 관점 변화까지 과정적 변화를 주장하였다.

진로전환에 대한 선행연구는 첫째, 진로전환을 직업전환과의 연계성에서 조직과 산업분야에서의 이직 및 전직에 관한 연구이며, 둘째, 자기이해와 직업세계 이해 또한 직업가치관을 의하여 개인이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진로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로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베이비부머의 진로전환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나형(2012)은 중고령층의 경력전환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경력전환의 동기와 경력전환에 임하는 태도, 경력전환과정에서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는 과정과 종전의 경력력이 현재의 직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의 활용에 대해 질적 연구를 통해서 전직지원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경력전환을 위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16]

김나래(2015)는 베이비부머의 진로전환의 하위 변인인 사회적 지지와 구직행동과의 관계를 통해 진로전환에 사회적 지지가 중요함을 연구하였고[17], 전현영(2013)

은 내러티브 연구 방법으로 베이비부머의 진로전환에 대한 경험적 주제와 진로전환 경험의 의미, 진로전환과 진로타협에 대해 8인8색 이야기를 통해 진로전환에 대한 연구를 했다[12].

주성희(2016)는 경력단절 여성의 생애진로전환 경험 분석에 대한 진로전환 연구를[18], 최동숙(2014)은 제대군인의 가족탄력성과 자기결정성이 진로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19].

또한 진로전환과 더불어 유사한 용어로 활용되는 경력전환의 선행연구에서 김행미(2012)는 전직지원서비스가 구직효능감과 경력전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서비스만족도는 전직지원서비스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력전환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혔다[20].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진로전환을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으로 보고 ‘자발적 진로전환’에 대한 설명력만을 가지고 있으며, 구조적인 힘에 의해서 진로전환을 해야만 하는 ‘비자발적 전환’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며, 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종합하여 보면 진로전환은 ‘인간이 일생동안에 걸쳐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행해야만 하는 일의 연속선상에서 불가피하게 경로를 이탈하여 새롭게 진로를 변경하거나 변화되는 것’을 뜻하는데, 베이비부머의 진로전환은 중고령자라는 연령의 시점에서 현재 행하고 있던 직업적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전환을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이후 베이비부머들의 삶과 일의 변화과정에서 개인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경험요소들을 바탕으로 제2의 인생설계를 통해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아가는 경력전환 과정이라 정의한다.

2.2 연구방법

2.2.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중장년 재취업 교육에 참여한 베이비부머 퇴직자(1955년~1963년)와 현재 구직활동 중에 있는 퇴직자를 연구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288명의 자료가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Characteristics		N	%
Sex	male	243	84.4
	female	45	15.6
	Total	288	100.0
Graduation	Below High School	18	6.2
	Diploma	40	13.9
	Over Bachelor	230	79.9
	Total	288	100.0
Career Period	Under 10 years	3	1.0
	11 ~ 20 years	52	18.1
	21 ~ 30 years	160	55.6
	Over 31 years	73	25.3
Total	288	100.0	
Type Occupation	Office Administrative	148	51.4
	Production Employee	36	12.5
	Profession	43	15.0
	Technical Post	37	12.8
	Sales and Service	24	8.3
Total	288	100.0	

2.2.2 측정도구

본 연구는 회복탄력성이 진로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Revich와 Shatte(2003)가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회복탄력성 지수(ROT)를 한국인의 특성에 맞게 변안하고 개발한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KRQ-53)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21].

요인분석 결과 자기조절능력(8문항), 대인관계능력(12문항), 긍정성(14문항) 등 총 34문항에 4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부하량은 자기조절능력 .790~.401, 대인관계능력 .813~.508, 긍정성 .841~.433으로 나타났다. 공통성도 0.4 이상으로 본 측정도구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진로전환검사(TGQ)에 사용된 검사도구는 진로전환의 개인적 차이를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는 측정도구인 Schlossberg와 Kay(2003)의 진로전환검사를 Atticiap(2004)의 TGQ-R을 수정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국적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장계영, 김봉환, 2009)[15]. 베이비부머의 진로전환을 측정하기 위해 총2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나, 요인분석 결과 상황지각(5문항), 대처방식(8문항), 지지(4문항) 등 17개 문항에 3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부하량은 상황지각 .815~.401, 대처방식 .762~.599, 지지 .896~.774이며, 공통성도 0.4 이상으로 측정도구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회복탄력성과 진로전환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설문지의 신뢰도는 문항 내적

합치도를 구하는 검사방법중의 하나인 Cronbach's α 값을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회복탄력성은 자기조절능력 .742, 대인관계능력 .844, 긍정성 .903으로 나타났다. 진로전환은 상황지각에서 .778, 대처방식은 .876, 지지 .916으로 0.7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두 척도 모두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도록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특성 변인은 성별, 학력, 경력기간, 직종 등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2.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첫째, 서울, 경기 및 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 분석하였기에 우리나라 전체의 베이비부머 퇴직자들로 일반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자기보고식 질문지법만을 사용하여 질문의 답변에 객관성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조사대상자가 회복탄력성과 진로전환에 대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보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2.3 연구결과

2.3.1 개인특성에 따른 진로전환 차이분석

선행연구들을 퇴직자의 개인특성에 따라 진로전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개인별 특성으로 학력, 경력기간 등으로 분류한 개인특성 변인에서는 유의확률이 $p < .05$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F=2.432, p < .05$)에 따른 진로전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하위변인 중 상황지각에서 정(+)의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에 따른 평균을 비교하여 보면 남자가 3.33, 여자가 3.05로 나타나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주어진 상황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하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진로전환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Table 2. Verification of career transition according to individual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M	SD	F	p
Sex ¹⁾	male	243	3.33	.706	2.432	.016*
	female	45	3.05	.772		
Graduation ²⁾	Below High School	18	3.20	.726	.164	.849
	Diploma	40	3.30	.882		
	Over Bachelor	230	3.29	.694		
Career Period ³⁾	Under 10 years	3	3.27	.416	1.239	.296
	11 ~ 20 years	52	3.25	.796		
	21 ~ 30 years	160	3.23	.664		
	Over 31 years	73	3.43	.791		
Type Occupation ⁴⁾	Office Administrative	148	3.62	.579	2.502	.043*
	Production Employee	36	3.44	.674		
	Profession	43	3.73	.552		
	Technical Post	37	3.48	.587		
	Sales and Service	24	3.57	.600		

*p<.05, **p<.01, ***p<.001

주: 1) male(a), female(b)

2) Below High School(a), Diploma(b), Bachelor(c)

3) Under 10 years(a), 11~20(b), 21~29(c), Over 31years(d)

4) Office Administrative(a), Production Employee(b) Profession(c), Technical Post(d), Sales and Service(e)

5) 1. Very unlikely, 2. Unlikely, 3. Normal, 4. Likely, 5. Very likely

직종(F=2.502, p<.05)에 따른 진로전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하위변인 중 대처방식에서 정(+의)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전문직 중에서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균을 비교하여 보면 그룹 간의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기술직, 생산직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직종일수록 타 직종에 비해 상황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진로전환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2.3.2 회복탄력성이 진로전환에 미치는 영향

변수간의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회복탄력성이 진로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개인통제 변인 중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성별과 학력은 제외하고, 경력, 직종을 통제변인으로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경력은 30년 이상($\beta=.221$ p<.01)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직종은 기술직($\beta=.221$ p<.01)에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 The effect of resilience career transition

Dep	Indep	β	F	R ²
Career Period	11 ~ 20 years	.080	5.49**	.233
	21 ~ 30 years	.055		
	Over 31 years	.221**		
Type Occupation	Production Employee	-.095	17.16***	.145
	Profession	.040		
	Technical Post	-.175**		
	Sales and Service	-.017		
Career Transition	Other Occupations	.051	17.16***	.145
	Self-regulation ability	-.016		
	Human relationship	.036		
Perception of Situation	Positive	.387***	17.21***	.154
	Self-regulation ability	-.097		
	Human relationship	.175**		
Coping Method	Positive	.850***	9.55***	.092
	Self-regulation ability	.016		
	Human relationship	.024		
Support	Positive	.249***	10.80***	.102
	Self-regulation ability	-.013		
	Human relationship	.142*		

*p<.05, **p<.01, ***p<.001

Reference

Career Period : Under 10 years

Type Occupation : Office Administrative

주: 1) 1. Very unlikely, 2. Unlikely, 3. Normal,

4. Likely, 5. Very likely

회복탄력성은 진로전환에 매우 유의(F=17.16, p<.001)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회귀모형은 전체 변량에 14.5%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상황대처 15.4%, 대처방식 9.2%, 지지에서 10.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긍정성($\beta=.387$, p<.001)은 진로전환에 매우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처방식과 지지는 기각되었다.

상황지각에서 긍정성($\beta=.850$, p<.001)은 매우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고, 대인관계능력

($\beta=.175, p<.01$)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기조절능력은 기각되었다.

대처방식에서는 긍정성($\beta=.249, p<.001$)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자기조절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지에서는 긍정성($\beta=.321, p<.001$)이 매우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인관계능력($\beta=.142, p<.01$)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기조절능력은 기각되었다.

3. 결론 및 제언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베이비부머들은 사회·환경적 변화와 더불어 미처 준비되지 못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진로전환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진로에 대한 논의는 주로 학령기에 있는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진로전환 측면에서 새로운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베이비부머들의 진로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퇴직이라는 개인적인 위기상황에서 회복탄력성을 통해 심리적인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지 진로전환에 대한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회복탄력성이 진로전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베이비부머 개인별 특성 변인이 진로전환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학력과 경력기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성별과 직종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성별에 따른 진로전환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은 다르지만, 이영아(2015)의 성인초기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와도 일치한다[22].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진로전환의 상담과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때 접근방법을 달리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전문직종일수록 직업적응이 높게 나타난다는 박영준(2010)이 검증한 유사연구와도 일치한다[23].

둘째,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회복탄력성이 진로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긍정성은 진로전환에 매우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대인관계능력은 낮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회복탄력성의 긍정성은 진로전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배혜련(2012)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긍정성은 자신감, 신체적 만족, 경제적 지원, 중요한 타인의지지, 직업정보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24].

셋째,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개인특성이 회복탄력성과 진로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개인특성에 따라 회복탄력성과 진로전환에는 차이가 있으며, 회복탄력성은 진로전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퇴직 이후 실제 진로전환과정에서 있는 베이비부머들에게 어떤 개인과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제언할 수 있다.

첫째, 초고령사회(2026년)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한국 사회에서 베이비부머들의 진로전환은 새로운 측면에서의 조망과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퇴직자의 진로전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현재 직장에 몸담고 있는 재직자들에게도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진로전환의 시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진로전환에 대한 지원과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비효율적인 진로전환에 대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을 시사한다.

둘째, 베이비부머 퇴직자들이 회복탄력성을 통해 퇴직이라는 개인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는 진로전환의 심리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Mirabile(1985)이 주장한 것처럼 개인이 퇴직으로 겪게 되는 심리적 변화를 새로운 경력을 추구하는 기회의 관점으로 변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베이비부머 스스로가 평상심을 회복하고 경력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회복탄력성은 개인적인 위기와 역경을 극복하고 진로전환에 중요하게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인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고용시장의 불안정,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으로 인해 더욱 진로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며,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직업'으로서의 진로전환을 위한 진로탐색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진로전환이 퇴직 이후의 제2의 경제활동을 위한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다면 이제는 진로전환의 영역이 전생애적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References

- [1] L. K. Kim, Experience in the Transition of Middle aged Men's career: Focused on Office Recruitment Retired Persons", Jeonju University Ph. D. Thesis 2018.
- [2] E. Y. Choi, "The Effects of Career Capital, Job Value, and Coping Behavior on Caregiver Well-Being", Kyonggi University Ph. D. Thesis, 2015.
- [3] J. H. Yoo, "the study on the impact of babyboomers production activity upon life satisfaction", Sejong University, Ph. D Thesis, 2013.
- [4] S. J. Park,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Combined Elderly Facility Model Based on the Baby Boomer Lifestyle", Yonsei University, Ph. D Thesis, 2011.
- [5] S. K. Choi, "A Study on the Impact of Resilience on the Quality", Hansei University, Ph. D Thesis, 2015.
- [6] J. A. Park,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resilience, job stressors, self-esteem,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in the organization of office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Seoul University, MA Thesis, 2015.
- [7] S. Y. Han, "Resilience, work - life balance and job satisfaction", Korea University, MA Thesis, 2015.
- [8] J. H. Lee, "The mediated effect of ego-resilience in the relation of college student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A Thesis, 2015.
- [9] S. W. Han, "Effects of Life Stress on Depression in Middle-aged Married Men", Kyungshung University, MA Thesis, 2015.
- [10] S. M. Son, "The Effects of Early Adulthoods' Self-Concept and Resilience on Their Loneliness", Dong-A University, MA Thesis, 2013.
- [11] B. S. Kim, Job Psychology, Seoul: Sigma Press, 2007.
- [12] H. Y. Jeon, "8 colors of 8 persons career transition narratives", Chungnam University, Ph. D Thesis, 2013.
- [13] Schlossberg, N. K. "*Counseling Adults in Transition*", New York: Spring Publisher Company, 1984.
DOI: [http://dx.doi.org/10.1016/0191-8869\(85\)90129-1](http://dx.doi.org/10.1016/0191-8869(85)90129-1)
- [14] Y. M. Son, "A Study on Job Transition Process of Unemployed People", Seoul University, Ph. D Thesis, 2001.
- [15] K. H. Kim & U. Lim, "A Study on the Transition System for the Elderly Career, Seoul: Korea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 2008
- [16] N. H. Kim, "A Study on the Career Transition of Workers in their Middle and Old Ages", Chung-Ang University, MA Thesis, 2012.
- [17] N. R. Kim,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job search behavior of the middle-aged job seeker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unlearning", Chung-Ang University, MA Thesis, 2015.
- [18] S. H. Joe, Analysis of career transition experience of career-break women: grounded theory analysis", Kyungshung University, Ph. D Thesis, 2016.
- [19] D. S. Choi, "The effects of family resilience and self-determination on career transition of discharged soldiers", Pusan University, MA Thesis, 2015.
- [20] H. M. Kim, "Study over effectiveness of outplacement to a sense of efficacy for seeking employment and possibility of career change, Pusan University, MA Thesis, 2012.
- [21] J. H. Kim, Resilience: A pleasant secret that turns trials into luck. Guy: Wisdom House, 2011.
- [22] Y. A. Lee, "The Effect of Integrative Art Therapy on the Resilience, Employment Stress and Satisfaction with Life in College Students", Wonkwang University, Ph. D Thesis, 2011.
- [23] Y. J. Park, "The Effects of Vocational Adjustment for Vocational Prestige and Self Image Accordance of the Employee", Gyeonggi University, MA Thesis, 2011
- [24] H. L. Bae, "The effect of resilience of college students on perceived career barriers", Kyonggi University MA. Thesis, 2012.

박 상 우(Sang Woo Park)

[정회원]



- 2019년 3월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박사과정
- 2012년 11월 ~ 2019년 : 현재 (주)인키움넷 교육사업본부
- 2018년 05월 ~ 2019년 현재 : (사)창직협회

<관심분야>

취업, 진로, 직업상담, NCS, 창직, 공기업면접